

인협, 2011베이징 국제도서전 참관

# 아시아권 최대의 저작권 시장 한국 2012년 주빈국으로 선정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김남수)는 지난 8월 31일부터 9월4일까지 열린 2011베이징 국제도서전을 참관했다. 북경 중국국제전람 중심 신관에서 진행된 이번 전시회는 중국도서진출구 총공사가 주최했으며 4만3000㎡의 면적에, 50여개 국 1800여개사 2100여부스의 규모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 잡지 등의 최신 출판서적류와 전자/멀티미디어 관련 서적, 만화/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 E-비즈니스솔루션, 컨설턴트, 출판관련 최신장비를 비롯하여 인쇄 및 종이, 문구류 및 선물용품 등이 선보였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약 20만 명이 전시회장을 찾은 것으로 집계됐다.

글 | 김상호 부장 kshulk@print.or.kr

사진 | 이종찬 부장 heekyung@print.or.kr



## 세계 4대 도서전, 아시아 최대 저작권 거래시장

베이징국제도서전은 세계 4대 도서전의 하나이며 아시아권 최대의 저작권 거래시장으로 꼽히고 있다. 앞으로 저작권 거래시장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경제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다양한 해외우수 출판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아동, 기술, 실용서 분야의 저작권거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2011베이징 국제도서전 전경
2. 2011베이징 국제도서전을 참관한 인협 김남수회장
3. 2011베이징 국제도서전에 설치된 한국전시관
- 4~5. 2011베이징 국제도서전을 관람하고있는 관람객들
6. 올해 주빈국인 네덜란드의 빈센트 반고흐 특별전 모습



올해 주빈국인 네덜란드는 1500㎡의 면적에 16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빈센트 반고흐, 덕브루나 관련 전시를 포함해 8개의 특별전을 개최해 호응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주관으로 288㎡ 규모의 한국관을 조성했으며 4000여종에 이르는 도서를 출품했다. 참가한 출판사는 위탁참가 12개사를 포함해 39개사였으며 웅진씽크빅, 교원, 길벗, 넥서스, 미래엔, 신원에이전시 등이 직접 참가했다.

### 한국, 2012년 주빈국으로 참가

베이징 도서전은 규모면에서 세계 4대 도서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적인 전시규모는 한국에서 열리는 KIPES와 비슷한 규모였으며 중국관은 기본부스로 제작하여 참가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다. 그런 가운데 몇

몇 업체에서 대규모로 부스를 제작하여 참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해외홍보관 가운데는 한국관이 가장 규모가 컸다. 또한 한국출판사의 참여가 가장 활발했으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중국시장에 진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에는 한국이 주빈국으로 참가하게 되어 한국관에서 이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기도 했다. 베이징 도서전은 다른 도서전과 달리 인쇄업체의 참여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한국 인쇄업체들이 참여할 경우,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주빈국의 전시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이 쏟아져 홍보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내년도 전시회의 주빈국으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